

뽕나무 계통별 오디의 과실적 특성 및 오디생산용 유망 계통 선발

김현복 · 성규병 · 홍인표 · 정인모 · 남학우

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

뽕나무 오디는 기능성 식품소재 및 농가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과실로서 뽕나무 묘목에 대한 일반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.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유전자원으로 보존 중인 뽕나무의 결실 오디를 계통별로 채취하여 과실적 특성을 조사하고 우수한 계통을 선발함으로써, 오디 생산용 뽕 품종의 육종 효율을 높이고 품종의 조기 농가보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코자 하였다.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1. ‘수성뽕’, ‘칭노상’, ‘수원노상’, ‘절곡조생(충북)’ 4계통은 그루당 10 kg 이상 수확 가능한 계통으로서 다수성 계통으로 선발하였다. 또한 단과중이 3.5g 이상인 대과형 계통과 17 Brix % 이상인 고당도 계통을 각각 5계통, 4계통 선발하였다. 공시계통 중 ‘절곡조생(충북)’은 단과중이 4.5g 으로서 가장 높았으며, ‘강선’은 19.6 Brix %로 당도 함량이 가장 높았다.

2. 과실적 특성인자인 수량, 단과중 및 당도 값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‘절곡조생(충북)’, ‘팔청시평’, ‘강선’, ‘수원노상’, ‘죽천조생’, ‘수성뽕’, ‘당상7호’, ‘장소상’ 8계통을 오디 생산용 우량 계통으로 선발하였다.